

인터뷰 ① - 대한민국학술원 선태무 과장

대한민국학술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문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373종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02년 7·8월호 48쪽 참조]. 10월부터는 선정된 도서를 대학 및 일부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총 36만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술원의 선태무 학술진흥과장과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리 : 이용훈 기획부장

◆ 이번 사업의 간략한 개요와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금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사업을 맡아 우수학술도서 373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들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여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였습니다.

본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사업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중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저서 및 번역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술서적 출판을 장려하고 나아가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학술도서 선정 대상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한국학, 기초과학, 자연과학의 인문학적 연구 등 6개 분야이고,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와 동서양 고전 중 우수 국역서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접수한 도서의 수는 3,120 종이었는데 우리 학술원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의 우수 학술도서 373종 405권을 선정하였으며 총 50억원의 정부예산을 가지고 이들 도서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의 지식생산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우리의 산업발전에 유용한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기초학문이 발달되어야 하는 데 기초학문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본 사업이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미 373종의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마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선정되었는지요?

우리 학술원은 본 사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아울러 우리 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아 본 사업을 맡아 지금까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수한 학술도서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학술도서의 응모를

받아 총 3,112종의 도서를 접수하였으며, 총 79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4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학술도서 373종을 선정하고 지난 7월 25일 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이를 신문지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사기준, 심사절차, 방법 등 모든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중의를 모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학술원회원 6명과 대학교수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등 외부위원 9명으로 총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총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은 학술원회원을 1/3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들로 위촉하되 지역별, 대학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자신의 저서를 응모한 교수나 학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학술원회원의 저서는 무조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각 학문분야별 응모도서수에 비례하여 분야별로 2-5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총 79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우리 학술원의 부회장이며 우리나라 철학계의 태두이자 바르게살기모임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태길 선생님께서 모셨습니다.

심사는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먼저 예비심사를 통해 당초에 공고한 공모도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학술도서로서의 기본적인 수준을 심사하여 1,902종을 선정하였고 이들에 대해 2차례의 본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에서는 학술적 수준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높은 도서를 최종 선정목표 도서의 300%까지를 선정하고 이들을 가지고 2차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차심사에서 1차심사를 통과한 도서를 심사위원 각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각자 개별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야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심사의 기준은 저서의 경우 저술내용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논리성·체계성, 번역서의 경우 도서내용의 학술적 가치, 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등이었습니다. 이같은 심사기준은 총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각 분야별심사위원회에서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첨가할 기준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합의·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차심사에서 929종이 선정되었고 2차 본심사에서 375종 407권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각 분야의 심사위원장들로 구성된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73종 405권을 우수학술도서를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 의하면 선정 후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신문에서 일부 특정출판사가 출판한 도서를 편파적으로 많이 선정했으며 학술도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의 취지와 심사과정을 잘 모르고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일부 특정 출판사의 도서를 편파적으로 많이 선정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학술 연구를 촉

진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도서의 발행 출판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심사기준에 의거 우수 도서를 선정하다 보니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출판사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한 출판사의 도서가 선정될 수 있는 도서의 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한다는 목적에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출판사간에 나눠먹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에 따라 채택하지 않았으며 우수한 도서라면 출판사에 구매되지 않고 심사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술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출판사의 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고 학술성이 떨어진 도서를 제출한 출판사는 비록 많은 도서를 응모했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총 366개 출판사가 도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1/3인 122개의 출판사 도서만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241개 출판사는 단 한편의 도서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심사결과는 그만큼 심사기준을 도서의 학문적 수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겠으며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들쭉날쭉이었다는 비판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기준은 저서의 경우 저술내용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논리성·체계성, 번역서의 경우 도서내용의 학술적 가치, 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등이었습니다. 이같은 심사기준은 총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각 분야별심사위원회에서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첨가할 기준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합의·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학술도서를 심사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기준을 엄격히 일관되게 적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그동안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문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으로서 학술원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술원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사업의 모든 단계를 재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 **도서관에 책을 배부하시게 된 이유와 도서관의 반응은?**

금년에 선정된 도서는 학술도서로 독자가 주로 교수와 대학생들이라고 생각되어 중점 보급대상을 대학도서관으로 하고 공공도서관은 각 시·도의 대표도서관에만 한정하여 보급했습니다. 우수 학술도서를 도서관에 보급한 것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공들여 뽑은 우수 학술도서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시대,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아직 시설이나 장서가 미흡하고 이용도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에서도 도서관이 우리사회의 핵심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약 400개 도서관에 보급을 했는데 특히 공공도서관들이 좋아하고 감사해 하더군요. 그래서 내년

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말경 도서 보급을 마치고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대학지원국의 국장님과 학술학사지원과장 그리고 담당 사무관 등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대학지원국장께서 교육부에서 BK사업 등 여러 가지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학과 교수들로부터 환원과 칭찬을 받고있는 사업은 이 사업뿐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직은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 하겠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출판사들은 물론이고 대학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 보급하면서 몇 대학을 방문하여 여러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교수 사회에서는 자기 책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자체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연구결과를 책으로 펴내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우수 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의 연간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3년간 추진되며, 3년을 마치고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대폭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몇 년간만 더 지속되면 출판사들도 이제까지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출판을 기피하던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기초 과학 분야의 학술서적을 앞다투어 출판하려고 할 것이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자들에게는 미리 원고 예약을 위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초학문분야의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술원은 각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연구 업적을 쌓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각종 학술연구 활동과 학술발전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입니다. 학술원 모든 회원들이 이번 기회에 기초학문육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맡아 수행하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술원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함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본 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